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0월 23일(주일) 제1120호

##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 헌신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오늘(23일)까지 차세대, 사랑부 교사 모집행사  
11월 17일까지, 수험생과 학부모 위한 기도회

차세대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할 때다. 다음세대 리더십을 양육할 차세대 교사 모집이 한창이고, 수험생 력시험이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에서는 오늘(23일)까지 '2017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를 실시한다. 차세대 교사 637명(서빙고 183명, 양재 154명, 부천 53명, 수원 82명, 대전 36명, 남양주 38명, 평택 7명, 인천 33명, 강동 17명, 양지 14명, 도곡 20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사랑부에서도 교사를 모집한다.

차세대 교사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를 받은 성도가 대상이다. 오늘(23일)까지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홍보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11월 중순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하면 교사대학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신입교사대학

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훈련과정이다.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는 누리홀, 양재와 도곡은 온유희에서 실시된다. 11월 17일은 2016 수험생 력시험일이다. 딱 25일 남았다.

차세대사역본부는 11월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기도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30분 서빙고 누리홀과 양재 JDS홀에서 평일에만 수험생과 부모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된다. 수험생 력시험일인 11월 17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온종일 기도회'가 진행된다. 온종일 기도회는 수능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 02-570-7548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지금은 차세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다.

## 깊어가는 가을은 전도집회의 계절

수요여성전도예배 '이야기가 있는 가을콘서트'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

특별한 전도집회가 연달아 막 오른다. 서빙고 여성사역이 수요여성전도예배 '이야기가 있는 가을콘서트'를 11월 16일 서빙고 본당에서 개최한다. The Blessing Chamber, 장광 장로, CCM가수 한재웅 목사가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모임은 11월 2일과 11월 9일 오후 12시부터 서빙고 본당

에서 실시된다. 참가신청은 서빙고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수요오전여성예배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회비는 1만 원(전도대상자는 무료).

전도사역본부는 11월 28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를 개최한다. 버킷

리스트는 일생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이라는 뜻이다. 이번 맞춤전도집회는 50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버킷리스트에 쓰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전도대상자 200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주일에 운영되는 통합데스크나 목회지원실, 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201(수요여성전도예배)

02-3215-3214(맞춤전도집회)

/ 김현준·김영선 기자

수요 여성 전도 예배  
이야기가 있는 가을 콘서트

2016.11.16(수) 10:30AM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말씀: 조호영 목사  
출연: The Blessing Chamber, 장광 장로(성우/영화배우), 한웅재 목사(CCM가수)  
※예배후에 식사가 준비됩니다

회비: 오찬자 1만원 (본인, 동반, 대상자는 교회에서 지원) 문의: 02-3215-3201 (여성사역)  
요청자기도모임: 11/2, 11/9(수) 오후 12:00-12:30 서빙고 본당 (월요일)

Onnuri 여성사역

## 목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2

## 교회건축 전문가 장형준 장로



## “색(色)다른 교회를 꿈꾼다”

목상하는 목수들을 만나고 싶었다. 일터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진짜 목상하는 목수들 말이다. 과연 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색(色)으로 교회를 디자인하는 목상하는 목수다. 주인공은 장형준 장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그때만 해도 소형교회나 대형교회나 관계 없이 전통적인 형식의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예가 고딕양식을 본뜬 뾰족한 십자가 탑이지요. 근래에 차별화된 특수목회가 시도되면서 목회를 담는 용기의 개념과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장형준 장로는 2001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교회디자인에 관한 책 〈새집줄게 헌집다오〉를 발간하였다. 뒤이어서 2011년 디자인개념을 보완하여 〈바로 그 교회〉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가 교회건축을 접하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히 온누리교회 공용공간의 색채 및 디자인 통일계획에 참여하면서부터다.

그가 교회디자인을 연구하는 데는 하용조 목사의 목회철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목회자가 전문가보다 기능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그에게 신선한 도전이었다. 그는 현재 필디자인 설계회사와 필하우징이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고유의 색채계획으로 건축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20여 곳의 교회를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있다.

### 새로운 교회는 새 그릇에

그가 방문하는 교회마다 공통된 의견이 “우리 교회는 설계 때부터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교회 리더십으로서

는 당연히 거룩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올바른 색채계획이야말로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배색성 및 색 체계를 연구해오다가 새로운 색 체계 ‘COLOR DNA’를 발명하였다. 학회에 보고되고 발명특허출원도 했다. 그 호환성을 위해 홍익대학교대학원 색채학과에서 이론과 실기를 가르쳐 왔다(그때까지는 먼셀색체계가 한국 KS표준이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색 체계가 잡힐 듯 말 듯 실타래처럼 풀리다가 영기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다 문득 무채색의 무한성을 보게 되었다.

“색도 아닌 색, 무채색을 들어 쓰심은 무채색보다 못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총 그 자체였습니다.”

### 나의 행동이 곧 선교

일터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그가 만난 하나님이 궁금했다. 8년 전 일이었다. 책을 발간하고 여기저기서 초빙을 받으며 바쁜 시기를 보내던 때였다. 한 교회 목사가 그에게 건축을 맡기고 싶다며 찾아왔다. 장 장로는 공사 규모를 듣고는 그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몸이 작은 규모에 빠듯한 예산이어서 회사를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하고 거절했다. 목사는 그 후 두 번을 더 찾아왔다. 목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은 돈이 우선이네요. 저는 지금 개인 전세자금을 월세로 돌리면서 교회를 개척하려는 것입니다.”

장형준 장로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 교회 건축을 맡기로 했다. 회사에 맡기면 그 비용으로 어렵게는 예산이었고, 작지만 특화된 교회를 완성하고 싶어서 그가 직접 맡기로 했다. 디자인계획, 현장방문, 가구제작 등 모든 작업을 혼자 도맡아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 교회 건축이 끝나고 장형준 장로는 본인의 인건비는 재능 기부한 셈치고 정산을 했더니 1천여만 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었다. 그 교회를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국민일보, 목회와 신학, 기독교보, 주간기독교신문 등 4곳의 언론매체에서 이 조그만 교회를 다루어 취재했다.

“그 경험을 계기로 ‘블루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디자인을 신청한 교회 중에 작고 힘든 교회를 선정해서 무료로 자문하고 설계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정이 되면 재정지원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가 디자인 하는 건축물의 90%가 교회다. 그에게는 남다른 원칙이 하나 있다. 교회 일을 할 때 장로라는 직분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장로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장로라는 직분으로 얻는 이득은 바라지 않는다는 의도도 담겨 있을 것이다.

“실력이 없어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짓는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전문가의 크나큰 보람이죠.”

그는 공사가 끝나면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한다. 단순히 성경책만 주는 것이 아니다. 성경책에 손수 글씨를 써주고, 식사권도 함께 넣는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라는 의미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지 고민한 끝에 고안해 낸 방법이다. 교회가 아닌 다른 건축물을 건축 할 때면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건축주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공사를 주관한 입장이라 빠질 수도 없는데 그가 크리스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권할 때가 있다.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그 문제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럴 때면 혼자 돼지머리 앞에 앉으면서 절 대신 축복기도 양해를 구한다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기쁜 날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들의 꿈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주위에서 손뼉을 치고 아멘을 외치는 등 거의 폭발적인 반응들이란다.

“오죽 불안하고 허전하면 먹거리로 없어질 돼지머리에 절을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정면으로 맞대응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곧 사회선교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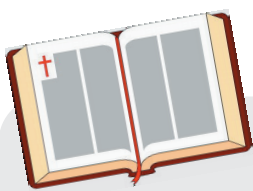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또 그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루 종일 또는 며칠 동안 기도한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일 매일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 감사를 깨달으면 매일이 행복해집니다. 또 새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운행하시며 저는 2인자로 그 뒤를 따라가면 정말 편안하고 든든해지더군요.”

장 장로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방향성을 중요하며 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권면했다. 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릴 거라고 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색을 예로 들면 레드(열정), 옐로우(감성), 그린(인성), 블루(지성), 퍼플(영감), 오색 무지개의 특별한 성향을 주셨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부러워하거나 자신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장점을 발견하십시오. 크리스천의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믿음과 격려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 요셉을 추천 받습니다  
문의: 02-3215-3196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말씀은 구원이 마치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 같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는다든 여러 말씀과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 받은 자로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계속 경험하고, 누리고, 실행하고, 구원 받은 자로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12절에서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한 의미의 권면이 1장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 구원, 노력여하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이 나타나는 생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2장 5절에서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임을 강조하

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렐 1:6).

선한 일은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13절).

구원이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지 않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해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자극하시고,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구원의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12절).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말씀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12절 초반부에는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순종이 나오고, 뒷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을 하나로 묶어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라는 권면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계속 이뤄져 가는 것입니다.

###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의무를 자주 구분시키려

고 노력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몫인지를 칼로 자르듯이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 교리의 차이가 생기고, 교단과 교파간의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지 헛필드와 찰스 웨슬리는 이 차이를 가지고 신문에서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밖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인간 스스로의 결단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히 사로잡혀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힌트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고와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다른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잠을 자게 하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스위치를 끄면 바로 쓰러져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잠을 잤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준비를 할 뿐입니다. 몸을 씻고 편안한 침대에서 불을 끄고 힘을 빼고 잠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어느 순간 잠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온 몸에 힘을 빼고 생각까지도 내려놓아야 잠이 임합니다. 이와 같이 잠을 잘 때 어디까지가 인간의 역사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만 그 어떤 열매도 농부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갈지만 그것 자체가 농작물을 자라게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밭을 갈아도, 씨앗이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어디까지가 농부 때문에 자란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농부의 수고를 통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십시오으로써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만들어놓으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실 수 있지만 기다려주십니다. 구원을 이뤄가시는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 비전, 목표, 마음 ‘흠 없고 순전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으로 흠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라는 권고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14-15절).

흠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려면 마음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흠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김없이 흠이 많습니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보십시오.

“나는 너희들을 흠 없고 순전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너희들은 그 이하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이하를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너희들의 영혼이 흠 없고 순전한 목표에 이를 때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흠 많고 순전하지 못한 상태로 스스로 만족하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는 순간, 나는 너희들을 흠 없고 순전한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너희들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때론 어떤 대가와 고통을 치르더라도 나의 목표는 너희 삶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같이 내가 너희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할 때까지 나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13면에 계속)

국내 10개 캠퍼스 순방

We're Onnuri

1. 부천 온누리교회



# 지역교계와 지역사회

예배와 양육, 사역 어느 것 하나 물샐 틈 없이 탄탄하고, 건강  
더 섬기고, 제대로 양육하고, 더 선한 영향력 주는 교회로 우뚝



본지에서는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국내 10개 캠퍼스를 순방하고 있다. 어떤 성도들이 모여 어떠한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교계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부천 온누리교회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부천 온누리교회는 지방으로 뻗어나간 첫 번째 캠퍼스 교회다. 2002년 12월 15일 창립했다. 현재 3,4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역교계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따뜻한 교회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세대 양육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예배와 양육, 사역 어느 것 하나 물샐 틈 없이 탄탄하고, 건강한 교회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가 어떤 모습 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 지역교계와 지역사회 섬기는 따뜻한 교회

부천 온누리교회는 부천 지역 한 교회와의 만남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2002년 부천 열방교회의 부탁으로 온누리교회 목회자가 새벽예배를 인도하게 됐다. 그 새벽예배를 인도한 목회자가 이재훈 담임목사다. 당시 구로광명공동체 부천순 성도들이 새벽기도회에 동행했는데 그날이 계기가 되어 부천 온누리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부천 온누리교회가 창립되고 부천지역 교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 부천 온누리교회가 지역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지역교회들이 말씀, 기도, 양육에 더욱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부천 온누리교회도 최선을 다해 지역교회를 돕고 또 도왔다. 이처럼 부천 온누리교회는 창립 때부터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2004년 교회를 이전한 부천 온누리교회에 과제가 주어졌다. 이번에는 교회 인근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유흥문화와의 영적 싸움이었다. 부천 온누리교회 근처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다. 유흥문화의 중심지에 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부천 온누리 성도들은 땅뽕기 사역에 집중했다. 음란의 영과 폭력의 영에 대적하는 기도도 열심히 했다. 그 기도의 힘이 있을까. 결국 나이트클럽들이 문을 닫았다. 지금은 부천 온누리교회 인근지역을 부천시가 앞장서서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부천 온누리교회는 지역교계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면서 성장했다.

2012년 부천 온누리교회는 또 한 번 비상했다. 예배처소를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것.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더 쏟기 시작했다. 한사랑 예배(탈북민), 사랑부(장애인) 예배를 신설했고, 인천구치소 여성재소자 섬김, 가출 청소년 섬김, 부평역 사랑해 밥차 사역 등을 더욱 활발하게 실시했다. 모두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다.

## 한 사람을 위한 예배와 기도모임

부천 온누리교회가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배와 기도다.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매주일 성인, 대학청년부, 사랑부, 한사랑(탈북민), 차세대 등 총 20번 예배를 드린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초신자들과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특별한초대예배를 드린다. 주중

예배는 수요일전여성예배와 수요일야예배를 드린다. 수요일야예배는 서울로 출퇴근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드리는 예배다. 퇴근 후에 여유 있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 호응이 무척 좋다. 매월 둘째 주일에는 '요셉행진'을 열고 일과 영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지난달 열린 남성집회 요셉행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에는 정진호 장로가 강의했고, 11월에는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강의할 예정이다. 부천 여성사역에서는 지난 학기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성경통독반'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부천 여성사역은 매주 목요일 '더 깊은 묵상'을 통해 성경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외에도 사랑부를 위한 기도모임,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차세대목요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 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금요기도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사랑 예배와 사랑부 예배가 빼놓을 수 없는 부천 온누리교회의 자랑거리이다. 한사랑 예배와 사랑부 예배는 2012년부터 드리기 시작했다. 지역사회를 섬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부천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예배다. 교회 인근에 장애인과 탈북민을 위한 예배처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부천 온누리교회가 드리기 시작했다. 두 예배 모두 6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고 있다.

사랑부 예배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다. 유치부부터 20살 지적장애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소속되어 있다. 부모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달부터는 사진반을 운영하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랑부에 오는 자녀들은 물론 부모들까지 집중팔구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승우 형제 성도의 아버지 이택준 성도도 아들과 함께 사랑부에서 예배드리다 예수 믿고 세례



따뜻하게 품는 ‘부천 온누리’



▲ 주일예배.

를 받았다. 사랑부 예배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지적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사랑 예배에는 부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 20가정이 참석하고 있다. 스태프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다. 지난해 탈북한 조의성 형제도 한 사랑 예배에 참석하면서 영적 아버지가 생겼다.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한 사랑 예배에서 만난 영적 아버지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한사랑 예배에서는 매년 연말 탈북민들에게 감장을 해주고 있다.

## 숨어 있는 보석 캐는 차세대와 대학청년부

부천 온누리교회는 다음세대 양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만큼 다음세대에 관심이 많다. 올해 1월 1일 교회식당을 차세대를 위한 예배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교회식당이 없어졌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차세대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만큼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차세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풍성하다.

부천 차세대는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양육, 교사 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JDS, 바울학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하브루타 교육법도 도입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식 교육법으로 일종의 토론방식의 교육방법이다. 에스더서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브루타 교육법을 적용하고 있다.

짧은 말씀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보석을 캐고 있다.

교사코칭과 부모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원활한 소그룹 나눔을 위해서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모든 교사가 코칭법 강의를 들으며 적절한 공감, 경청, 질문, 칭찬 방법 등을 배우고 있다. 차세대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더 깊은 나눔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목요어머니기도회, 헬로맘, 와이즈패밀리 등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와이즈패밀리는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 와이즈마더링에 아버지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다. 부친 차세대가 이렇게 활발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동안 차세대 성도 비중이 크게 늘었다. 부천 온누리교회 전체 성도가 3,400명인데 그 중에서 차세대가 1,000명이 넘는다.

부천 대학청년부도 지난 1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숙했다. 190명이던 청년들이 260명으로 늘었다. 그 비결은 양육에 있다. 부천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120명이 2015년 12월부터 동시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성인공동체가 청년들의 일대일 제자양육자로 헌신했다.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학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성인인과 청년 240명이 일제히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한 청년 95%가 올해 4월 수료했다. 올해는 대학청년부에 다림방을 만들었다.

금요기도회 ‘성령 플러스’도 대학청년부 부흥에 한 몫 했다. 성령 플러스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기도회로 매월 주제를 정해 진행하고 있다.

이웃, 어르신, 재소자, 청소년을 내 몸같이

이래서 부천 온누리교회를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 같다. 정말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다. 부천 지역 교계와 지역사회를 품는 어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했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도움의 손길이나 예배가 필요한 곳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달려간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교회답게 금요일식역이 활발하다. 사랑의 쌀독, 사랑해 밥차 식역 등을 하고 있다. 사랑의 쌀독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교회에 쌀을 비치해 두는 식역이다. 매월 적게는 수십 kg에서 많게는 수백 kg의 쌀이 필요한데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다. 사랑해 밥차 식역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부평역에서 진행되는 배식식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을 찾아가는 이·미용식역, 여성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인천구치소식역, 거리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가출청소년식역, 농어촌교회 후원, 의료선교 등도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점심시간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스쿨임팩트’ 식역도 준비 중이다.

나는 이래서  
부천 온누리교회가 좋아요!

“

우리 교회는 영적 부의 원천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은혜  
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 김정순 목사

사역하고 양육할 맛이 납니다. 무궁한 가능성이 있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허복만 장로

생명이 가득 넘치는 교회입니다. 차세대가 많고, 젊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정영규 장로

우리 교회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한금숙 성도

초신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본이 되는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석만 성도

차세대들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차  
세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  
력하기 때문입니다. / 염동복 성도

순식구와 만나 교제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 최덕기 성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선교열정이 가득  
합니다. 교회가 선교사명을 품고, 성  
도들을 양육해주기 때문입니다.

/ 이훈재 성도

매주가 명절같이 풍성하고 행복합니  
다.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성  
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알림                        |                        |
|---------------------------|------------------------|
| -10월 특별찬조대                | -사랑해 밥차                |
| 윤형주의 사랑노래 이야기             |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00~2:00 |
| 일시 : 10월 30일 저녁 7:00시     | -주차봉사자                 |
| 장소 : 부천 온누리교회 본당          | 주일 오전 9:00~11:30       |
| -인천구치소 사역                 | -러빙핸즈                  |
| 둘째 주 금요일 오후 1:00~4:00     | 주일 오전 9:00~11:30       |
| -가출청소년 사역                 | 문의 : 목회지원실             |
| 둘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3:00~5:00 |                        |

| 부천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       |           |
|----------------|-------|-----------|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주일 1부          | 07:00 | 본당        |
| 주일 2부          | 09:00 | 본당        |
| 주일 3부          | 11:30 | 본당        |
| 주일 4부          | 14:00 | 본당        |
| 대학청년부          | 16:00 | 본당        |
| 특별한 초대         | 19:00 | 본당        |
| 영아 1부          | 09:00 | 지하 1층 드림홀 |
| 영아 2부          | 11:30 | 지하 1층 드림홀 |
| 유치 1부          | 09:00 | 지하 1층 예꿈홀 |
| 유치 2부          | 11:30 | 지하 1층 예꿈홀 |
| 유년 1부          | 09:00 | 204호 경찬홀  |
| 유년 2부          | 11:30 | 204호 경찬홀  |
| 초등 1부          | 09:00 | 비전홀       |
| 초등 2부          | 11:30 | 비전홀       |
| 유초등부           | 14:00 | 지하 1층 드림홀 |
| 중등부            | 11:30 | 506호 두란노홀 |
| 고등부            | 09:00 | 506호 두란노홀 |
| 어린이영예배         | 09:00 | 507호 한동홀  |
| 사랑부(지적장애)      | 11:30 | 3층 꿈아이홀   |
| 한사랑(탈북민)       | 14:00 | 3층 꿈아이홀   |



30~40대를 위한

양천공동체 맞춤전도집회

## “걱정 말아요 그대”

전도대상자 185명 참석, 15명 결신, 25명 긍정적 반응

양천공동체가 30~4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걱정 말아요 그대’를 지난 15일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도집회에 초청한 전도대상자 200명 중에 185명이 참석했다. 참석율이 무려 92.5%나 된다. 전도대상자 18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25명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고 했다. 양천공동체 지체들의 뜨거운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양천공동체는 지난달부터 전도대상자들을 위하여 매주 모여 눈물로 기도해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유익준 장로가 전도집회에 초대된 회사직원들.

양천공동체가 30~4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걱정말아요 그대’를 개최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30~40대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 30~40대들은 경제 불황, 자녀 양육, 부모보양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들에게 진짜 힘이 되어줄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이다. 가정경제와 가정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30~40대들에게는 휴일이 별로 없다. 순모임에서 30~40대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 바쁜 세대에게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 30~40대 크리스천도 더 필요하다. 교회를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전도대상자들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김종석·김은정(마태1순) 부부는 20년 동안 소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네 쌍의 부부와 친구 두 명을 초청했다.

##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김종석·김은정 부부는 이번 전도집회에 초청한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하면서 5년 동안이나 기도해 오고 있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간절하게 꿈꿔왔다. 그들에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초대장을 보냈다.

“교회에서 음악회를 여는데 함께 갈래?” 흔쾌히 응해줬다. 하나님이 분명 이들 부부와 양천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 이번 전도집회에 전도대상자들의 초청한 모든 이들이 김종석·김은정 부부의 마음과 같았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양천공동체는 이번 전도집회를 참 열심히 준비했다. 집회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부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었다.

드디어 전도집회의 막이 올랐다. 무엇보다 교회에 처음 온 전도대상자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극진히 섬겼다. 마음을 활짝 열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자녀 돌보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었다. 전도대상자들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이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해 섬겼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이 있었다. 전도집회 다음 날 양천공동체 김은정 성도의 친구 정소영 자매가 아이가 기록한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다. 그 사진 속에는

아이가 자녀 돌보미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가 그림과 글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 김은정 성도의 직장 후배 임소는 자매는 이번 전도집회에서 찬양과 메시지를 들으면서 유난히 많이 울었다. 최근에 남편이 큰 수술을 받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임용성 목사(양천공동체 담당)의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된 것이다.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더라고요.”

자신이 초대된 친구들이 예수님께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을 본 김은정 성도가 눈시울을 붉혔다.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유익준(마태2순) 장로는 회사 직원들을 초청했다. 37년 동안 철강유통업을 하고 있는 유익준 장로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부부 두 쌍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부부 세쌍을 초대했다. 유 장로는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전도 하지만 마음을 여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

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생활이 바빠 못가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그들을 이번 전도집회에 초대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유 장로의 간절한 마음이 김현준 형제에게 전해졌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가슴 속 깊이 새기고 갑니다.”

기쁜 발걸음이 또 있었다. 김승원(요한1순) 순장의 초대로 큰아들과 며느리가 전도집회에 왔다. 김 순장의 며느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아들도 교회에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도 자연히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다. 그 또한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1세대로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어요. 그 시작이 큰 아들과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양천공동체가 개최한 30~40대를 위한 전도집회 ‘걱정말아요 그대’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이들의 선물이었다. 그 아름다운 현장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 목회칼럼

나는 40대 목사다. 서른에 결혼했는데 그 출발이 참 초라했다. 동대문상가에서 10만원 상당의 커피반지를 맞추고, 강남역 주변 리어카에서 2만원 주고 산 짝퉁 샤넬 시계(사람들은 채널이라고 부른다) 두 개로 예물을 대신했다. 그런데 너무 행복했다. 우리에게는 바위도 부술 수 있는 젊음이 있었고,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신학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맞벌이 부부생활을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바쁘게 살았다.

이번 전도집회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보게 된 뉴스가 있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빚에 허덕이는 30~40대’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30~40대

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빚이 많은 세대라고 한다. 지난 4년 동안 30대 평균 빚이 34.8%가 증가했고, 40대는 40%대로 증가했다고 한다. 전 세대가 폭등하니 살 집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평생을 빚 갚는데 투자하고 인생을 마감해야하는 신세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취업률은 재난수준이다.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다 보니 대학교 졸업식장은 썰렁하기만 하다. 그 중에서도 30~40대가 가장 힘들다. 한 달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3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만2천 명, 40대는 5만1천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30~40세대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 하나는 경쟁

## 유일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

이다. 이겨야 된다는 생각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건강이다.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기면 가족부양과 미래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세대지만 튼튼하지 못하다.

어느 세대, 어느 인생이든 열심히 달리다보면 ‘왜’라는 질문에 부딪치게 된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등의 질문 말이다. 이 질문 앞에 어쩔 줄 몰라하는 30~40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로 본다. 나의 30대를 돌아보고 40대 초반도 돌아봤다. 그랬더니 유일한 대답은 예수님뿐이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인간은 속도를 발명했지만 그 속도 안에서 험악이는 인생을 산다. 이성이 발달했지만 감성이 무너졌다. 고학력 시대와 최첨단 시대가 왔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정작 본질적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인생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양천공동체가 전도 집회를 개최했다. 삶의 부딪침을 만날 때마다 이 귀한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말이다.

임용성 목사  
(양천공동체 담당)

## 그리스도 본받은 교사 아래, 그리스도 닮은 다음세대 나온다 !

엄사출고도(嚴師出高徒),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사 아래 그리스도를 닮은 다음세대가 나온다는 말도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차세대 교사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 본이 되는 교사들이 있다. 차세대가 차세대의 보조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온 가족이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이들도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 섬기면서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노래하는 이들을 만났다.

중고등학생 보조교사들은 어떤 모습일까. 아직 나이가 어린데 차세대 교사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기우 중에 기우였다. 영아부와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중고등학생 보조교사들은 말투부터 남달랐다. 한 마디 한 마디에 차세대에 대한 진한 사랑이 묻어 있었다. 어쩔 저렇게 예쁘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다. 바른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한 영혼과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더 예뻐다.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홍다희(고2) 자매는 엄마가 수원 온누리교회 영아2부 전도사다. 영아부 여름캠프를 도와주러 갔다가 보조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아이들이 본받고 싶은 교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이들 입장에서 더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대단한 열정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것이 시간적으로 괜찮은지 물었더니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받고 온다고 했다. 김윤아(중1) 자매는 올해 5월부터 유아2부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다. 차세대 교사가 된지는 얼마 안됐지만 벌써 아이들과 사랑에 빠졌다.

“유아부 한 아이가 저에게 ‘선생님 드세요’ 하면서 과자를 주는데 그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당시 모습을 회상하는 표정에도 행복이 가득했다. 중1 허찬 형제도 아이들이 좋아서 무작정 유아2부 보조교사로 자원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고



김미영 성도, 권수진 자매, 권오영 성도, 황예슬 자매, 이순실 성도(왼쪽부터)

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편안 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 온 가족이 차세대 교사!

권수진(고1) 자매는 아버지 권오영 성도와 어머니 김미영 성도와 함께 차세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황예슬(중2) 자매는 어머니 이순실 성도와 함께 유아2부를 섬기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닮아 있었다. 비결이 궁금했다.

“아이들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하 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차세대 교사로 섬기면서 받는 은혜와 감동이 이 뿐만이 아니라고 했다.

아버지 권오영 성도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고 했고, 어머니 김미영 성도는 “매주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부모를 보고 자란 권수진 자매도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다 부모님께 배운 거예요.”

온 가족이 차세대 교사다보니 공통의 관심사가 당연히 차세대다. 이와 관련된 대화가 늘면서 가정에 늘 활기가 넘친다고 했다.

황예슬 자매와 엄마 이순실 성도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다. 이순실 성도는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완전히 해소됐고, 황예슬 자매는 학교 갈 때보다 교회 올 때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아이들을 만나는 게 기다려지거든요. 이 마음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또 한창 사춘기인 자녀와 엄마 간의 다툼이 없다. 서로 공감대를 공유하다보니 더 많이 대화하고, 교사모임에서 기도제목도 나누다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비결이라고 했다.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차세대 교사로 섬기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고백했다.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도 영향을 줬다. 주일학교에 다니던 시절이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다.

이순실 성도처럼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은 평생 간다. 그 기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 바로 교사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 크리스천의 모습을 배운다.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 줄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사, 당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겠는가.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차세대사역본부장 노희태 목사님과 함께



노희태 목사(차세대 본부장)

#### 온누리교회 차세대 부서와 교사 현황이 어떨습니까?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국내 10개 캠퍼스에 100개 부서가 있습니다.

전임교역자 22명, 교육전도사 70명, 교사 2,200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차세대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예수님의 꿈 아이 2,600명, 꿈이자라는 땅 3,600명, 파워웨이브 2,300명으로 총 8,500명입니다. 전체 숫자로만 계산하면 교사 1인이 학생 4인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마다 교사인원이 다릅니다.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아부 등 몇 개 부서에는 교사가 많은데 그 외 다른 부서에는 교사 1인이 학생 4명을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게는 교사 1인당 학생 10명 이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사의 변동도 많은 편입니다.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 “다음세대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 차세대 교사가 왜 필요하고, 교사로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영적 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입니다. 차세대 교사가 본을 보일 때 다음세대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교사는 다음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과의 만남은 교사 스스로에게도 신앙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한 영혼과 만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교사를 하면 영혼을 품게 되

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다음세대에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밝은 다음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은 미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세대,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주시고 꼭 헌신해주시고요.”

## 특집\_ 길 따라 흔적 따라

1. 기독교와 한글보급
2. 기독교와 시민운동
3. 기독교와 사회복지

# 복음 전파되는 곳에 한글, 한글 전파되는 곳에 복음

우리 사회의 진짜 위기는 ‘어른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누군가 앞장서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데 그 역할을 해 줄 어른이 없다는 얘기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계몽운동 사례와 그 계몽운동을 이끈 선각자들을 만나보면서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독교가 한글보급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을 당시만 해도 지도층에게 홀대를 받았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훈민정음’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당시 성리학에 물들어 있던 양반들은 한글이 보급되는 것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고, 글을 깨우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백성들보다 무지하고 몽매한 백성들을 다스리기 더 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글반포를 막아섰다. 그렇게 사장될 뻔한 한글이 기독교를 만나 새 생명을 입었다.

## 한글이 긴 잠에서 깨어나다

기독교와 한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기독교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번역성경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우리나라에 보급하면서부터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했다.

존 로스 선교사는 근대 최초의 한글 문법학자다. 그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다. 1873년 토마스 목사가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청과 조선의 국경이었던 고려 문에서 한국인 상인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을 건네면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았다. 그러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의 문호개방 소식을 들은 로스 선교사가 다시 고려문을 찾았다. 거기서 의주 상인 이응찬을 만났다.

이응찬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로스 선교사는 1877년 〈Corean Primer〉라는 한글 문법서를 간행했다. 이후 서상륜과 만나 한국어 성경번역을 이끈 끝에 1882년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라는 한국 기독교 최초의 한글 성경을 발간했다. 51페이지 이 작은 책 한권이 조선 복음 전파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은 권서인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었고, 배포되었다.

1885년 4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내한했을 때 그들의 가방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 이 성경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다. 이수정은 일본기독교인 농학자 츠다센

에게 선물로 받은 한문성경을 읽고 개종했다. 1883년 도쿄에서 세례를 받은 이수정은 미국인 선교사 루미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고, 1885년 1월 순한글로 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요코하마에서 인쇄하게 되었다. 그해 4월 일본을 거쳐 내한하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한글성경을 갖고 한국선교를 시작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조선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어학선생을 고용해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 종교를 접했다. 선교사들은 한글을 ‘선교언어’(Mission Language)로 채택해 성경과 기독교 문서, 신문 등을 발행했다. 1893년 미국장로회 선교공의회는 “모든 문서는 한문을 섞지 않고 순전히 한글로 인쇄한다”는 방침을 채택하고 순한글 문서들을 세상에 반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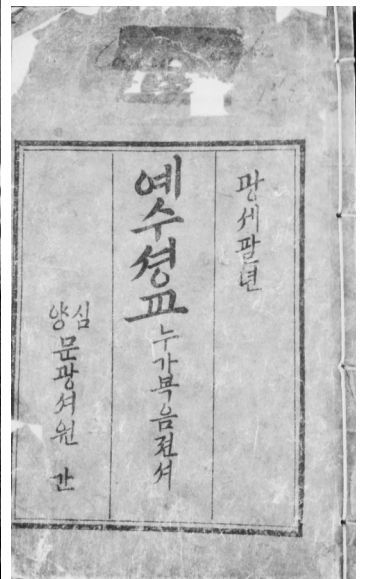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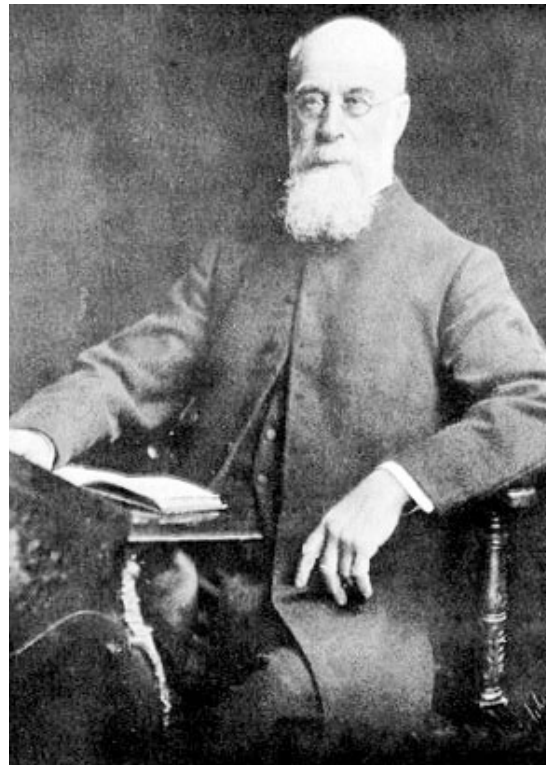
성경 번역과 문서출판 사역에 종사했던 계열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토착문자는 너무 오랫동안 먼지 속에 묻혀 지내면서 자신을 알아줄 이를 기다렸다. 부인네들이라도 한 달 정도면 깨칠 수 있는 쉬운 글이 또 있을까? 이와 같은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그 문자는 신약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찍어내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4백년의 긴 잠을 자다가 마치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깨어나듯, 이제 일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전하고 있다.”

## 기독교와 한글, 민중교회(民衆敎化)이뤄내

한글학자 최현배가 이런 말을 했다.

“공자, 맹자의 유교에 젖은 사람들이 한글을 언문이라 하여 멸시전대하고 있을 적에 기독교가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교리가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한글이 전파되고, 한글이 전파되는 곳에 그 교리 또한 전파되는 서로 인과 결과가 되었다…(중략) 사회적으로 미천의 처지에 있던 서민대중이 새로운 교훈인 기독교의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처음으로 글눈을 뜨고서 지식과 교리에 접하는 신생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니 여기서 비로소 ‘어리석은 백성이 날로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거룩한 뜻



▲ 최초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 그가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이 실현되게 된 것이다.”

4백년 넘게 홀대당하고 묻혀있던 한글이 기독교를 만나 비로소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글 창제의 근본 취지인 ‘민중교회(民衆敎化)’를 기독교를 통해 이루게 된 것이다.

복음이 들어간 한글은 짧은 기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파됐다. 교육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과 농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한 달 정도면 깨우칠 수 있는 쉬운 한글을 배운 여성들은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읽으면서 교리를 배워나갔고, 억눌려있던 자의식을 일깨웠다. 당시 여성들에게 교회는 유일한 배움의 장(場)이었다.

소설 〈삼국수〉의 실제 주인공 최용신 전도사는 한글을 이용해 농촌계몽운동에 힘썼다. 최용신 전도사는 낮에는 농부들과 함께 일하고, 밤에는 한글강습과 산수 등을 가르치며 아동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농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문맹퇴치와 더불어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최용신 전도사의 헌신적인 가르침은 농촌 마을의 변화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부모들이 자녀들은 본인들과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게 된 것도 바로 이 계몽운동의 영향이다.

## 한글을 지켜낸 크리스천들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 기독교학교에서는 일제의 한글탄압에도 한글교육을 놓지 않았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1889년 배재학당에 삼문출판사를 설립하고 신문, 잡지, 성경, 찬송가, 교

과서,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주시경, 이윤재, 김윤경, 최현배 등 대표적인 한글학자들도 기독교 학교에서 복음을 깨치고, 한글의 우수성을 배웠다. 일제의 탄압에 대항해 한글을 연구하고 지킨 이들은 크리스천 한글학자들이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고유문화를 멸절시키는 한민족말살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때 가장 심하게 박해를 당한 것이 한글이다. 1910년 강제합병과 함께 한글 대신 일본어가 국어(國語)가 되었고, 1920년대 들어 총독부는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서조차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을 지킨 이들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었다. 총독부가 미션스쿨에서도 성경교육과 한글교육을 금지했지만, 장로교와 감리교는 한글신문 ‘기독신보’를 창간해 일제에 저항했다. 1938년 총독부가 한글을 폐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미션스쿨들을 폐교했음에도 기독교의 한글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누구나 성경을 읽게 하려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노력은 자연스레 문맹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결과를 낳았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독일어 성경이 있듯이 한국의 기독교 발전에는 한글성경이 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바라던 한글전파를 크리스천들이 이루어냈다. 1912년 성서회관 봉헌식에서 게일 선교사는 한글성경 반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간편한 문자 덕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급단의 나라에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나라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에덴동산으로부터 갈릴리바다에 이르는 친숙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 황재명 목사의 이사야서 산책 5

구약의 거의 모든 예언서를 보면 저자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다(렐 1:1~19, 겔 1:1~3, 호 1:1, 암 1:1~2, 스 1:1, 말 1:1). 이 기록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다. 이는 예언의 주체가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줌과 동시에 예언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권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은 대부분 예언서 서두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독 이사야서만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기록이 6장에 나타나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언을 선포하는 도중에 삽입하고 있다. 먼저 이사야 1~5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이사야 2, 4장)을 대비 및 강조한 후에 6장에 들어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

이사야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에스겔 선지자처럼(렐 1:4~28) 천상의 모습을 보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였으며(사 6:1), 여호와를 섬기는 스랍들과 그들의 찬양하는 환상을 보았고(6:2~3), 특히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 번에 걸쳐 칭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참고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세 번 반복함은 최상급 강조표현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이사



조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Giovanni Battista Tiepolo)가 그린 예언자 이사야

야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탄식을 자아내며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였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늘 제단불로 이사야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죄 사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회개와 정결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마침내 스랍이 가져온 하늘 제단의 숯불로 입술의 정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를 찾으시는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6:8). 그러나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이사야의 사역이 앞으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것을 보여

## 이사야의 소명과 남은 자

준다.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이사야서 전체를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완고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극에 달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무시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사 43:6, 49:6, 롬 11:11, 행 13:46~47). 만약 이 부분이 이사야서 서두에 설명 없이 제시되었다면, 그 당시 이사야서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이상한’ 소명의 근거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하

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11절을 보면 이사야는 “내 주여 언제까지임 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이 날지,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 언제 회복될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호소하는 이사야의 탄식으로,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 속에 완고해진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중보(출 32:11~13)와 연결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중보(롬 9:1~3)로 이어진다. 이런 탄식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엄중한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6:11~12), 동시에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도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임을 ‘그 루터기-거룩한 씨’ 비유를 통해 선포하셨다(6:13). 바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으며(롬 9:27~29),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오늘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소수의 ‘남은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다수의 사람인가?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 노벨문학상 수상 ‘밥 딜런’을 생각하며



밥 딜런(Bob Dylan, 1941.5.24~)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화가이자 시인이자이다. 노벨문학상에 문학가가 아닌 사람이 선정된 경우는 역사학자 테오도르 몸젠, 정치인 윈스턴 처칠,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장 폴 사르트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문학이라고 생각되는 범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었고 가수로서 이 상을 수상한 것은 밥 딜런이 처음이다.

“knocking on heaven’s door~”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천국을 노래하는 가수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무리카미 하루키, 필립 로스, 이스마일 카다레, 응구기 와 티옹오 등 쟁쟁한 작가들 사이에서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시적인 가사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의 노래들은 마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밥 딜런은 전통적인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밥 딜런이 6살 때까지 미네소타 유대인 공동체에서 생활했을 정도로 그의 가정은 뿌리 깊은 유대인 집안이었다. 밥 딜런이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 세계는 냉전시대와 베트남 전쟁으로 혼란 속에 있었다. 그때의 내면적 고찰이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앨범 ‘The Freewheelin Bob Dylan’을 발매하고 사회적 저항 운동의 상징적인 음악가가 됐다. 그의 시적인 가사는 대중음악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번째 사운드 트랙 ‘Blowing in the wind’는 앨범 ‘The Freewheelin Bob Dylan’에서 가장 손꼽히는 명곡이다. 흑인민권운동과 월남전이 한창이던 미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가사를 음유해보자.

## “천국을 노래한 음유시인”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만, 진정한 인생을 깨닫게 될까요.

Yes, and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on the sand?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백사장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요.

The answer, my friends,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친구여, 불어오는 바람에 답이 있지, 오직 바람만이 대답할 수 있지

성공가도를 달리던 밥 딜런이 돌연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밥 딜런의 개종은 <타임>과 <뉴스위크> 등 주간지에서 다룰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개종에 실망한 팬들도 있었고, 기독교인 팬들이 대거 생기도 했다.

밥 딜런은 1978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1980년대에는 음악활동보다 전도사로서의 삶에 집중했다. 1979년부터는 ‘Slow Train Coming’이라는 기독교 색채가 깊은 앨범을 내기도 했다. 이 앨범들은 CCM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세상은 ‘그를 한물간 거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가 쓴 가사들은 천국에 더 가까워

졌다. 앨범 ‘Slow Train Coming’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복음을 노래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깊어졌다. 연이어 ‘Saved’, ‘Shot of Love’ 등을 냈다. 앨범 Saved의 초반 본 표지는 피 흘리는 예수님의 손과 그 손아래 있는 제자들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음은 Saved의 가사이다.

By His grace I have been touched, by His word I have been healed.

그의 은혜가 나를 만졌네, 그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네.

by His hand I’ve been delivered, by His spirit I’ve been sealed.

그의 손이 나를 구원했네, 그의 성령이 나를 돌렸네.

지금 세상에는 밥 딜런 열풍이 불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5일 동안 팔린 밥 딜런의 자서전이 지난 11년 동안 팔린 것보다 많다. 세상은 이렇게 시끌벅적한데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그의 겸손을 볼 수 있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를 보는 듯하다. 선선한 가을밤 밥 딜런이 부른 천국을 감상해보는 것이 어떨까.

## IT인의 밤 ‘로그온’ 개최

11월 10일 19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

IT인의 밤 행사 ‘로그온’이 오는 11월 10일 저녁 7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로그온’은 IT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임이다.

IT인의 밤 행사 ‘로그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IT인들이 직장에서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나누고, 고갈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재확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훈 담임목사와 고건 장로가 IT 기독교인들을 위한 비전을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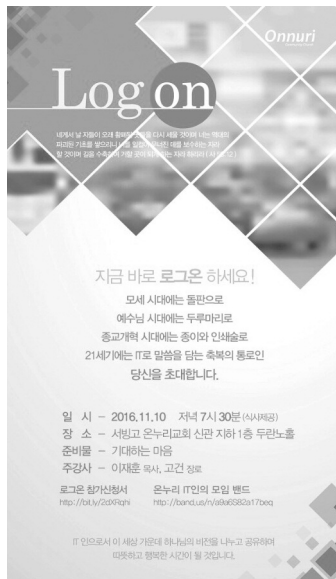
할 예정이다.

IT인의 밤 행사 ‘로그온’ 참가 신청은 블로그(<http://bit.ly/2dXRqhi>)나 밴드(온누리IT인의모임밴드, <http://band.us/n/a9a6S82a17beq>)에서 하면 된다.

김동환 팀장은 “하나님이 IT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영적 회복과 자존감 회복을 도모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IT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문의: 양명철 총무 010-3899-4268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로그온 포스터.

## 저출산대책포럼 새 이름 공모

11월 13일까지, 힘차고 공감할 수 있는 이름

‘저출산대책포럼’에서 새 이름을 공모한다. 저출산대책포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온누리교회 가정사역본부가 발족한 기구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경적 시각으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저출산대책포럼의 새 이름 공모는 힘차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활동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새 이름 공모에는 온누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저출산대책포럼의 새 이름, 설명 및 이유를 적어서 이메일([green-bi55@naver.com](mailto:green-bi55@naver.com))로 11월 13일까지 보내면 된다. 저출산대책포럼의 새 이름은 강하고, 힘이 느껴지는 발음으로 영어·한글 모두 가능하다. 상표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대상 1명과 우수상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문의: 송종환 장로 010-3333-3010

/ 정현주 기자

## 녹색 식물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

‘당신을 통한 나의 성장’ 11월 9일부터

서빙고 상담실에서 주최하는 녹색식물을 매개로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당신을 통한 나의 성장’이 11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01호에서 진행된다. 4주 동안 진행되는 원

예치료 프로그램 ‘당신을 통한 나의 성장’에서는 테라리움 만들기, 다육식물 심기, 센터피스 만들기 등의 과정을 통해 심리적 성장과 성숙, 영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회비는 8만원. 문의: 02-793-2998

## 온누리 선교정책 설명회 개최

10월 31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콘서트홀

2000선교본부에서 ‘온누리 선교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31일(월)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다. 이번에 열리는 온누리 선교정책 설명회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30개 공동체 선교사역자들이 모인다. 변화된 교회의 선교 정책을 공유하

고, 선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다락방별 책임 선교사 제도 및 성인공동체의 해외 아웃리치 관련정보 교류도 할 예정이다.

문의: 배윤호 팀장 010-3879-1990

/ 정현주 기자

강동 OBC 로마서 과정  
11월 12일부터 개강

OBC(Onnuri Bible Club) 로마서 강의가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강동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OBC 로마서 과정은 로마서 서론,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심, 새로운 자유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 복음과 그리스도인, 복음과 교회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분당 로비,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 와이미션 12기  
수강생 모집

수원 온누리교회가 와이미션(온누리선교학교) 1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주 동안 매주 주일 오후 4시 수원 온누리교회 2층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과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원. 5주차에는 양화진을 방문해 한국선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6주차에는 온누리M센터를 방문해 타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진다.

문의: 김복기 팀장 010-7339-4628

/ 이소정 기자

## 부모들을 위한 ‘온누리세계관학교’

11월 3~17일, 서빙고 시온홀

부모가 꼭 들어야할 특별한 강의가 열린다.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3주 동안 오후 7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되는 온누리세계관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는 부모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맞췄다.

11월 3일 진종구 선생(양화중학교)이 ‘주의 자녀, 자기주도적학습철자로 세우고 싶습니까?’, 11월

10일 신상언 선교사가 ‘당신의 자녀는 건강하십니까?’, 11월 17일 안점식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기독교세계관과 교육’을 주제로 강의한다.

등록은 아이스쿨([www.ionnuri.org](http://www.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5천원. 10월 30일까지 사전등록을 하면 1만 원이다.

문의: 02-3215-3533

/ 정현주 기자

## 수원, 내적치유집회 개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오후 7시30분

수원 온누리교회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저녁 7시30분 본당에서 3일 동안 내적치유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내적치유집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주제로 진행된다. 토피 목사(YWAM 국제선교단체)가 강의한다.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주일 수원 온누리교회 1층 로비에 마련되는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회비는 1만원.

문의: 문권기 팀장

010-7221-8017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달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인 청파노인복지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어르신 이 즐겨보던 TV가 망가졌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에게 TV는 좋은 친구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

다. 그 어르신이 TV를 다시 시청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난달 25일 온누리신문에 후원광고 요청을 했습니다.

3주 뒤 김종영(청우봉사단) 선

생님이 TV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어르신 댁에 32인치 TV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어르신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너무 큰 선물을 받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이 나눔의 손길이 되어 어르신께 행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차혜민 사회복지사  
(청파노인복지센터)



오사카 기 · 도 · 제 · 목

- 10월24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에 부흥과 회개가 일어나도록
- 10월25일(화) 150개 협력교회가 세워지고, 실행위원들이 하나 되도록
- 10월26일(수) 러브소나타 홍보가 잘 되어, 집회 당일 만석이 되도록
- 10월27일(목)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 10월28일(금)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10월29일(토) 이재훈 목사, 강사, 출연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10월30일(주일) 집회 당일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있도록

## ■ 부천 여성사역 '더 깊은 묵상' 간증



/ 문란희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 나의 옷을 벗으니

“묵상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영성 학교 '더 깊은 묵상'의 강사 서승동 목사님이 묵상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으로 강의의 문을 열었다. 그 짧은 몇 마디를 듣고 지금껏 나의 묵상의 깊이가 얼마나 얇고, 자기중심적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대학 때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상을 해 왔지만 여전히 나의 문제해결을 위한 초보적인 묵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알고 온 마음을 드리며 기꺼이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대상 28:9).

생각과 의도를 살피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노트를 펼쳐 지나간 기록들을 살펴봤다. 대부분이 나의 관심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찾는 내용이었다.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다. 최근 묵상 중에 풀지 못한 숙제처럼 가슴에 담아뒀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갔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말씀을 주시하다보니 영킨 실타레가 풀리듯 답답한 마음이 풀렸다. 대학캠퍼스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한동안 모교에 마음을 두고 섬겼었는데 서서히 내려놓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몸도 마음도 편하고 싶은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있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처음과 같이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나의 옷을 벗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며,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더 깊은 묵상임을 5주간의 과정을 통해 배워가고 있다. 단번에 고쳐질 습관은 아니겠으나 스스로를 꺾는 훈련과정을 거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성숙한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들녘에 익어가는 가을의 정취만큼이나 아름답게 성숙해 갈 내 마음의 풍경을 그리며 '더 깊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간다.

## ■ 부천 대학청년부 드림플러스 천로역정 탐방



/ 이용순 자매(부천 드림플러스)

## 나는 지금 천로역정을 하고 있다

나는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초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에서 처음 봤다. 어려운 사자성어로 쓰인 그 책은 나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나와 관계없는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필그림 하우스에서 천로역정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는가?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에 녹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내는 것, 교회에 주기적으로 출석하고 옆에 계신 집사님, 장로님처럼 사는 것이 내 신앙생활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기독교인의 삶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하며, 많은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고난의 길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원했던 기독교인의 삶은 주님의 찬란한 은혜를 받고, 승승장구하며 언제나 주님 곁에서 머무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 환상을 내려놓았다.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공동체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모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로역정에 나온 크리스천들이 유일하게 쉬었던 곳이 공동체였다.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완주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나에게 있어서는 일대일 제자양육과 순모임이 예수님으로 향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함께 나누는 신앙인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앞으로 겪게 되는 고난은 무엇인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들이 더 많이 있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열정과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지만 언젠가 익숙한 신앙 속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잃지 않고, 지도를 보면서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지금 천로역정을 하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보았던 그 길처럼 아름답고 감사한 길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야 하고, 어둠의 골짜기도 통과해야 한다.

고난을 통해 변화가는 크리스천처럼 나도 담대하게 변화가기를 원한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앞으로 겪을 고난도 담대하게 이겨내길 기도한다.

##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간증



/ 김정아 성도(동작공동체)

##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시기에 하게 된 일대일 제자양육은 나에게 빛과 같은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2-3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나눔을 하였다. 양육자님의 세심한 인도로 나는 여러 가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침체되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정도로 회복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주 수요일 일대일 제자양육이 끝나면 은혜가 넘쳐 열심히 해보자 다짐했지만 “아, 정말 다짐대로 안 살아지는구나”는 것을 느끼고 좌절했다. 그리고 또 다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 은혜가 생기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심한 어느 날이었다. 일을 그만두고 싶은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때 마침 '성령 충만'에 대해 나누게 되었다. 이전에 양육자님이 “자매님이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설마 되겠어?’ 하는 의심이 들었던다. 2년 전부터 방언을 받고 싶어 가끔 기도했지만 뜻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성령 충만에 대해 배우고, 양육자님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허가 저절로 움직이며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 나는 큰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다.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하던 몸이 아프지도 않고, 환자들 보는 것도 괴롭지 않게 되었다. 아픈 이들을 위해 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방언기도를 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인격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느낄 수 있다.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싶다. 내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 일대일 양육자가 되어 양을 길러야겠다고 다짐 해본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사모한다.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홍요한, 에스더 선교사 부부(아프리카 D국)

##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협력하고 있는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 한 인교회로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3개월 정도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청소년들과 무엇을 나누면 좋을지 묵상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나누도록 인도하셨다. 두 가지를 나눴다. 첫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역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음을 나눴다. 두 번째,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예배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누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다. 3가지 누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온전한 누림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세례 받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신다”고 하신 선언처럼 예수 안에 있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라

고 명령하셨다. 예배드릴 때(롬 12장), 예수 안에 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의 가장 큰 원인은 불통 때문이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감사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감사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감사를 삶으로 누리라. 기쁨, 기도, 감사의 누림의 축복은 아버지의 선물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비록 지금 내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 장로칼럼

### 새가족들을 위하여!



김해기 장로  
(한강공동체)

주일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 바로 새가족 교육이다. 이 시간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위한 장이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새가족 교육은 오전반(10시 30분~11시 30분, 오후반(1~2시), 열린새신자예배 새가족반(저녁 8시 30분~9시 30분)이 진행되고 있다. 4주 동안 등록교육과 일대일 제자양육 4주차까지가 진행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홀수달 마지막 주일 저녁에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열고 있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는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된 이들을 환영하는 축제이다. 각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도 참석한다.

온누리교회는 목회철학에 따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왔다.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1개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숫자보다 많다.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축복인지 모른다. 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교’라는 바퀴와 ‘전도’라는 또 다른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새가족사역팀은 새가족들을 위한 선교사이고,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다. 모든 새가족들이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교육을 잘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사실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어렵게 어렵게 전도해서 겨우 교회에 나오게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거나 혹은 너무 차가운 인상을 주면 새가족들은 교회에 실망할 것이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새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 사역을 새가족사역팀만이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새가족사역팀이라는 생각으로 새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주위에서 “예배시간이 몇 시 인가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와 같은 질문하는 사람은 새신자임이 틀림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속 교회출석을 권유하는 등의 친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가 주차공간의 부족이다. 실제로 새가족이 함께 승용차로 교회에 왔다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이내만 먼저 새가족교육을 받으러 가고, 남편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교육을 함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주차문제로 마음이 상해 교회출석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 지혜를 모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다. 이번 주에도 새가족사역팀은 새롭게 등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새가족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감동의 전달이 되도록 애쓰고 싶다.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새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할 것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다.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 권사칼럼

###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송순민 권사  
(강촌공동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약 1년 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전도를 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전도를 하려니 막막했다. 시간이 흘러 금년 봄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바로 온누리신문에 실린 전도폭발 수강생 모집광고가 그것이었다. 나는 배워서 꼭 전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전도폭발 훈련을 신청했다.

기쁜 마음으로 신청했지만 시작과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당시 나는 방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고, 눈도 성치 않아 병원을 다녀야 했다. 아들도 내가 중도에 포기할 것이라고 여겼는지 만류했다. 어느 것 하나 훈련 받을 여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이끌어주셨기에 가능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암송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로 내 나이가 71세이기 때문이다. 이 나이가 되면 물건을 챙기러 방에 들어갔다가 무슨 물건을 챙기러 왔는지 기억 못할 때가 많다. 그런 내가 소책자 한 권을 암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도문이 정말 잘 외워졌다. 내가 외우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도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네가 내가 기뻐하는 전도를 하고 싶니?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았다. 암송이 힘들지 않았다. 또 복음제시를 반복해서 외우다보니 그저 당연하게 여기며 막연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믿어졌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깊이 와 닿았다. 자연스레 기쁜 마음이 샘솟았다. 전도폭발 1단계 훈련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방학 때 전도하러 다닐 것을 굳게 다짐했다. 약속대로 고속버스터미널과 지하철을 오가며 기회 닿는 대로 전도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면서 상처도 받았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때 기억에 남는 자매가 있다. 그 자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복음을 귀 기울여 듣더니 영접 기도까지 했다. 나는 그 자매에게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더 큰 기쁨을 경험할 것”이라며 교회에 꼭 나갈 것을 권했다. 자매는 “신기하게 그 말이 다 믿어진다”며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나는 지금 전도폭발 2단계 훈련을 받고 있다. 훈련 과정이 정말 재밌다. 이전에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암송하는 것이 훨씬 재밌다. 훈련 받는 화요일이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이 모든 일들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만약 암송하는 것이 막막해서 전도폭발훈련을 망설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힘들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길 바란다.

## 신앙에세이



이해영 목사  
(서대문공동체)

흔히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더 나아’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누구나 기대하는 상식적인 소망이며, 이상적인 미래관일 것이다. 그런데 그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더 낫다’는 생각과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인가? 세상적인 이치에서 ‘더 나은’이라는 의미는 대체로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는 세상 기준과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모세의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은 어느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400년간 노예의 삶과 40년간 광야의 삶이 그것이다. 특히 40년 동안은 광야에서의 방황, 열두 정탐꾼과 두 정탐꾼, 갈렙의 위대한 신앙고백과 기생 라합의 상전하지의 하나님, 급히 고기와 빵을 먹으며 유월절 시작, 황급히 양식을 준비하여 요단을 건너 유월절을 기념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다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넌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전보다 이후의 크기와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졌지 커진 것은 하나도 없다. 바다와 강은 비교될 수 없고, 바다를 직접 갈라주신 것과 제사장들이 애써 강을 뚫고 갈라진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 자연히 만나는 다시 먹지 못했다. 이후 수고로운 농사를 지으며 추수할 때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다(수 5:11~12).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 어느 것이 더 위대한가? 하늘에서 기적같이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것과 농사짓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대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적의 빵, 하늘의 만나를 주위 먹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서 수고하며 씨를 뿌리고 곡식을 추수케 하신 것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저 멀리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자 함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다. 광음과 함께 창조가 일어나는 성부의 육성이 아닌 미천한 인간이 되신 성자 임마누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이 그의 성품과 내적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는

진실로 당신의 자녀들과 일체가 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과 일체된 삶이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적과 영광과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영광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적들을 우리는 오늘도 목격하며,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환청보다 성품의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진리의 말씀에 무릎 꿇어야 한다. 홍해가 아닌 요단 건너기를 즐겨워하며, 만나가 아니라 오늘도 땀 흘려 씨 뿌리는 삶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땅의 소산을 아버지과 함께 사랑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지금 비교 불가한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너희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나를 밀어내고 너희들의 삶 밖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의 영혼이 흠 없고 순전해질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일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흠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흠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족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대로 뒤틀리고 타락한 어두운 세대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인생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흠이 발견되고, 순전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투르고, 미미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흠 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수준에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매우 기뻐하십니다.

###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독교 작가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자랐는데도 씩씩하고 남자답게 성큼성큼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할 아버지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 많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흠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때까지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져도 하나님은 “잘했다, 기쁘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격려하시고, 손을 잡아주십니다. 어린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배우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고, 꾸준히 순종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달음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16절).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노력 중 하나가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이 흠 없고 순전한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요. 생명의 말씀에 꼭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구절절 암송하고, 성경내용을 통째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성경공부 타이틀이 있습니다. ‘말씀을 관통하는 공부’라는 제목은 교만한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관통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관통합니까.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관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관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말씀을 내 지식으로 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꿰뚫는 공부’라는 주제도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꿰뚫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셔야 우리가 흠 없고 순전한 삶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을 흠 없고 순전하게 변화시키려는 열심을 마음에 품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17~18절).

사도 바울이 내 피를 붓는 일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피를 붓는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흠 없고 순전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순종, 예배, 제사에 희생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이뤄지는 일에, 구원이 이뤄져가는 일에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둡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부모세대들이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차세대 자녀들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두란노 신간

### 기도가 힘이다!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  
강준민 저 | 두란노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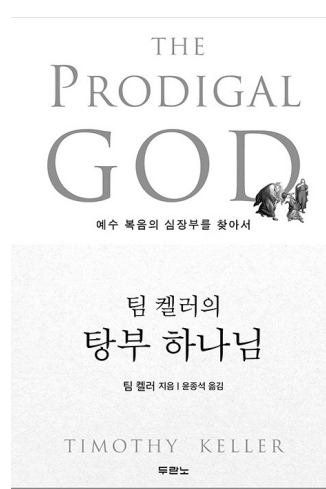
살면서 난관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난관에 부딪힌 사람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로 나뉜다. 좌절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돌파하는 사람 등 각양각색이다. 그렇다면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 강준민 목사는 “기도가 난관을 돌파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한다. 나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난관을 만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난관을 통해 성숙해질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돌파의 속도보다 방법을 보신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책은 성경 속 인물들이 난관을 만났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세, 다윗, 야곱 등은 고난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기도했다. 기도로 난관을 뚫으며,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지혜

가 충만해졌다. 이 책을 읽고 난관에 부딪힌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 “이 시대 탕자들에게”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팀 켈러 저 | 두란노 | 10,000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둘째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났다. 그곳에서 쾌락에 빠져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만다.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맞이해줬다. 그런데 맏아들은 달랐다. 아버지의 환대에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야기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함께 동생을 반기고, 용서하자고 타이르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다.

흔히들 이 비유를 보면서 둘째 아들에게 집중한다. 그러나 팀 켈러는 이 시각을 달리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했다. 맏아들도 주목한 것이다. 맏아들의 순종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팀 켈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 마음에 주목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탕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꿈꾸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꾸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꾸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운동(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그 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여성성교함찬당 모집

모집: 수시모집

연습: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대상: 등록교인

문의: 김정화(010-9192-6382)

국악찬양팀 팀원모집

분야: 사물놀이 등 타악 경험자 및 배우실분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반(서빙고)

문의: 신현희 팀장(010-6281-9121)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 교사모집

일시: 매주일 오후1사~오후 3시 30분

장소: 서빙고온누리 B101호

모집: 다문화 중학생반 1명, 성인반 1명

문의: 이승희 총무(010-4229-2822, 문자만)

인천캠퍼스 전임간사모집

모집: 음향, 영상담당 전임간사 1명(유경험자)

문의: 박창홍 간사(032-437-9686)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직원 모집

분야: 해외사업담당

자격: 선교에 비전이 있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 관련경험자, 영어 가능자

모집: 11월 19일까지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제출: ojm@abetterworld.or.kr

문의: 오정민 PM(02-2271-2246)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양재 커피숍 직원, 양지 영선 직원,

양지 기관시설관리 직원(1년 기간제

계약직)

자격: 세례교인, 경력무관

(경력자, 관련자격증 우대)

문의: 총무팀(02-3215-3102)

TP30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훈련기간: 17년 1월 2일(월)~26일(목)

국내4주간 합숙

접수마감: 12월 8일까지(목)

면접: 12월 17일(토) 서빙고

신청: http://www.visionvillage.org

문의: 031-331-8182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틀운동(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





## 일본 CGNTV 개국 10주년 10년의 은혜 그리고 열매



www.cgntv.net



#1

### 복음의 불모지를 향한 도전, 일본 CGNTV

기독교 인구가 1%를 넘지 못하는 일본에서 2006년 개국하여 47개 현, 1800여개 지역교회와 협력하며, 출연자, 후원자, 집회 참가자, 시청자 등 4200여 명과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2

### 무목교회에 흘려보내는 영적 공급원, 일본 CGNTV

일본 내 700여 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무료로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들을 위한 방송을 통해 예배를 돕고 있으며, 문화 전도 집회인 '러브소나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 일본 땅을 향한 사랑의 메신저, 아가페 CGN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아가페 CGN'을 설립, 특별 재난 지역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이웃리치를 통해 피해 지역을 실질적으로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

### 살아있는 선교방송, 일본 CGNTV

차세대 프로그램인 <유아스페셜>, <성경의 마을> 등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있으며, <신앙과 인생>, <10분 지역강단> 등 현지화 방송을 통해 일본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